

## “Kenvue Inc. 켄뷰 (KVUE: NYSE)”

미국의 대표적인 소비자 건강 기업

### Summary

세계 최대 제약사  
소비자건강 사업  
분할 상장

미국의 제약회사 존슨앤드존슨(J&J)의 소비자건강 사업부가 인적분할해 설립된 자회사 **Kenvue(켄뷰)**가 5월 4일 미국 뉴욕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타이레놀, 리스터린 가글, 베이비 파우더 등이 대표 제품입니다. 공모가는 \$22, 공모 금액은 5조원 수준으로 올해 미국시장 상장 종목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6월 12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61.6조원**입니다.



출처: Kenvue Website

J&J는 **의료기술(Ethicon)**, **제약(Janssen)**, **소비자건강(Kenvue)**의 세 가지 사업부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 소비자건강 사업은 나머지 2개 사업과 고객층, 성장 방식이 다릅니다. 의료기술과 제약은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며,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존재합니다. 반면 소비자건강은 일반대중을 고객으로 하고, 탄탄한 브랜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보다는 소매와 유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Kenvue의 분할이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자건강 시장**은 2022년 3,69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선진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속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건강 수요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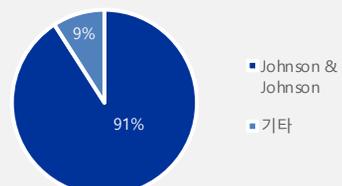
130년 이상  
꾸준히 성장

J&J은 1886년 Johnson 삼형제에 의해 뉴저지에 설립되어 응급처치 제품과 유아용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1944년에 상장한 J&J는 1959년 타이레놀 제조업체 McNeil Laboratories, 1961년 독일 처방약 제조업체 Janssen Pharmaceutica를 **차례로 인수하며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오랜 기간 성장을 거듭한 J&J는 HIV/AIDS 관련 약품, 유아용품으로 유명해졌고 코로나 기간 동안 백신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혔습니다.

J&J 주주에게  
주식 배분 예정

J&J이 켄뷰의 대주주로 지분의 91%를 소유합니다. 이 주식들은 올해 중후반에 걸쳐 J&J 주주들에게 배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J&J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 그룹(The Vanguard Group)으로, 약 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상장 후 Kenvue 주주 지분율 >



출처: Kenvue 투자설명서

## Business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온라인 판매로 매출 회복

2022년 매출은 **150억 달러**로 전년대비 0.7% 감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2022년부터 물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고, 국제적으로 환율이 불안정하여 2022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 1분기 매출은 약 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총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되었고, 기침약, 감기약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매출의 40%는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등을 판매하는 **Self Care**에서 발생했습니다. 매출의 31%는 **Essential Health**에서 발생했는데, 베이비파우더 같은 유아용품과 리스터린 가글과 같은 구강케어 제품을 판매하는 부문입니다. 매출의 29%는 뉴트로지나 브랜드로 대표되는 스킨케어와 헤어케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Skin Health and Beauty**에서 발생했습니다. 각 판매부서의 매출 비중은 몇 년 동안 크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출의 50%가 북미, 21%가 중동, 21%가 아시아태평양, 8%가 남미에서 발생했으며, 총 165개의 국가들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에 공개된 켄뷰의 북미 주요 고객에는 미국의 대형 소매점 월마트와 대형 약국 월그린스,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아태 지역 주요 고객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회사 알리바바와 호주의 소매점 Woolworths(울워스)가 있습니다.

USD(백만)	2020	2021	2022	1Q22	1Q23
매출	14,467	15,054	14,950	3,590	3,852
영업이익	7,848	8,419	8,285	611	660
순이익(손실)	(879)	2,031	2,087	528	240

회계연도 1월 기준. 1Q23은 2023년 2-4월.

출처: Kenvue 투자설명서

## Key Insight

소비자건강 시장  
 꾸준한 성장 전망  
 - 고령화  
 -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Euromonitor와 Nicholas Hall의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건강 시장**은 2022년 3,690억 달러 수준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4.8%로 성장해왔고, 2025년까지 3%에서 4% 사이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선진국의 인구가 고령화되고 개발도상국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소비자건강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을 위해 국가가 지출하는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OECD 국가가 국민건강에 지출한 금액의 비중이 국가 전체 지출 비중의 15%를 차지할 정도였으며, 이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건강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켄뷰도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Euromonitor, Nicholas Hall